

젊은 남성들은 어떤 얼굴모습의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가?

이경성* · 한덕웅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얼굴을 보고 인상을 지각하는 차원들 가운데 어떤 차원이 매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얼굴인상을 지각하는 네 차원들로서 '순하다.사납다', '이지적이다.맹하다', '점잖다.경박하다' 및 '여성스럽다.남자답다' 차원들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138명의 남학생들에게 여성의 얼굴사진 126장을 제시하고 이 사진들을 각 차원 혹은 매력수준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사진에 제시된 여성의 얼굴인상이 여성스러울수록, 그리고 이지적일수록 매력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두 차원만으로 매력 평가의 86%가 설명되었다. 그러나 연구 1에서 사진 자극들이 지니는 매력수준이 서로 달라서 두 차원이 매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매력에 영향을 미친 두 차원, '남자답다.여성스럽다'와 '맹하다.이지적이다' 차원에서 높거나 낮은 값을 얻은 여성 사진들 가운데 매력이 중간 수준으로 비슷하게 평가된 사진들을 선정하여 사진 자극의 매력수준을 일정하게 고정하고 이 두 차원에서 평정한 인상이 매력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연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20명의 남학생들이 각 조건별로 한 여성의 얼굴사진을 보고 매력수준과 인상을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피험자들은 네 조건 모두에 참여하는 피험자내 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 2에서도 연구 1과 일관되게 '남자답다.여성스럽다' 차원과 '맹하다.이지적이다' 차원 모두 매력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남성스러우면서 맹한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을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덜 매력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제어 : 얼굴모습, 인상차원, 이성관계, 여성성, 이지성, 대인매력

신체적으로 매력있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아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Walster, Aronson, 및 Rottman(1966)이 수행한 실험에서도 이 현상을 보고한 바가 있다. 이들은 미네소타 대학생들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무선적으로 데이트 상대를 선정해 주었다. 그 결과,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데

이트를 계속하게 만든 유일한 결정요인은 지능이나 그 외에 다른 성격들이 아니라 신체적 매력이었다.

신체적 매력은 특히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이성관계에서 상대의 매력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Buss(1993)는 남녀가 배우자를 고를 때 각기 다른 단면을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고 공

* 교신저자 : 이경성(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tel. 02-760-0723, fax. 02-760-0485, seonga@skku.edu)

주) 귀한 조언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연구자들과 함께 37개국에서 일만명 이상의 성인에게 결혼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특징들을 알아보는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의 야망, 부지런함 및 돈을 잘 버는 능력을 높게 평가한 반면, 남성은 여성의 신체적 외모와 매력을 더 중요시하였다. Berry와 Miller(2001)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신체적 매력은 남성들의 관계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사전에 성격검사(NEO FIVE 요인검사)를 실시하고 신체적 매력을 측정한 다음, 6분 동안 상호작용한 후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성들의 성격은 남성들이 이성관계에서 경험한 상호작용의 질(quality)을 평가하는데 예측력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신체적 매력은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들은 덜 매력적인 여성보다 더 매력적인 여성과 상호작용을 더 좋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남성들의 신체적 매력은 여성들이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연구들의 결과로 보면 여성들과 달리 남성들은 관계만족이나 배우자 선택에서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성격보다 중요하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어떤 얼굴 모습을 지닌 여성을 매력적이라고 판단할까? 여성의 얼굴특징과 매력의 관계를 다룬 국외 연구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어린 모습으로 동안의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Berry와 Brownlow(1989)의 연구에서는 눈이 크고 둥글며, 눈썹이 높고, 턱이 작아서 어린 얼굴 모습을 특징으로 지닐수록 그렇지 않은 성인들에 비해서 약하고, 복종적이며, 따뜻하고, 친절하고, 순진하고, 정직하다고 지각하여 긍정적 인상을 지닌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성숙한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과 매력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아서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한 결과들이 다소 혼재되어 있다. 성숙한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을 매력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의 예로는 Cunningham(198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대학졸업 앨범에 있는 여성의 사진과 미스 유니버스의 사진들을 모아서 남학생들에게 사진 속 여자의 매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들은 눈이 크고 코와 입이 작은 어린 모습의 여성 이외에 눈이 크고 광대뼈가 나오고 볼이 좁으며 웃을 때 입이 큰 성숙한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을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성숙한 얼굴인상과 매력의 평가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연구들(Berry & Brownlow, 1989; Berry & McArthur, 1985; Cunningham, Barbee, & Pike, 1990, 연구 2, 연구 3; McArthur & Berry, 1987; Zebrowitz, Montepare, & Lee, 1993)이나 낮은 상관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Berry, 1991a, 1991b; Berry & Brownlow, 1989)을 보면 성숙한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이 매력적으로 평가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아시아계 사람들은 서양사람들과 달리 성숙한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Wheeler와 Kim(1997)은 아시아계 학생, 라틴 아메리카계 학생, 그리고 백인 미국계 사람들에게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흑인, 그리고 백인여성의 얼굴사진을 보고 매력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인, 라틴 아메리카인, 그리고 백인들이 다양한 얼굴사진에 대해서 매력을 평정한 결과에서 높은 일치치를 보였으나($r = .93$), 아시아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성적 성숙을 드러내는 얼굴의 특징들에 의해서 덜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면 한국의 남성들은 과연 어떤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에게 매력을 느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여성의 얼굴인상이 어떤 차원으로 지각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얼굴인상을 형성하는 차원을 알아보려는 시도는 이수정과 유재호(2001)와 이경성(2002)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이수정과 유재호(2001)는 한국의 20대 여성의 얼굴사진들을 얼굴인상을 표현하는 20개 형용사들에서 평정시켜서 20대 여성들의 얼굴이 '날카로운/서구적인 대 맹한/동양적인 인상'의 기준과 '남성적인/강인한 대 여성적인/귀여운 인상'의 기준으로 변별된다는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이경성(2002)은 얼굴인상을 표현하는 대표적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사람들이 사람들의 얼굴인상을 '순하다/사납다', '이지적이다/맹하다' '점잖다/경박하다', 및 '여성스럽다/남자답다'의 4차원에서 지각함을 알아내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에서 얼굴인상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용어들과 함께 일상으로 얼굴 모습을 기술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들을 수집하여 867개 용어들을 모은 다음, 이 용어들 가운데 적절성 측정에서 4.5 이상(7점 척도: 1 매우 부적절 ~ 7 매우 적절)이고 사

용빈도가 1.5 이상(4점 척도 : 0 전혀 사용안됨 ~ 3 매우 자주 사용)인 202개 용어들을 가려냈다. 그 다음 이 용어들을 서로 의미가 유사한 용어들끼리 한 범주로 분류하도록 한 자료를 다차원분석하여 얼굴인상의 지각에 기초가 되는 네 차원들을 알아냈다. 이 네 차원들 가운데 '남자답다·여성스럽다' 차원은 이수정과 유재호(2001)의 '남성적인/강인한 대 여성적인/귀여운 인상' 요인과, '맹하다·이지적이다' 차원은 '날카로운서구적인 대 맹한동양적인 인상' 일부분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에서 얼굴인상을 지각하는 네 개 차원들 즉, '사납다·순하다', '남자답다·여성스럽다', '맹하다·이지적이다', 그리고 '경박하다·점잖다' 차원 가운데 남성들이 여성들의 얼굴 모습을 보고 매력을 평정하게 되면 어떤 차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얼굴 모습에서 추론하는 인상차원들과 매력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남성들은 순하고, 여성스럽고, 이지적인 얼굴모습을 지닌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진화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은 가사와 육아의 전통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여성,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현명한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여성은 사납기보다는 순하고, 남성스럽기보다는 여성스러우며, 맹하기보다는 이지적인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일 수 있다.

지금까지 얼굴인상 차원 가운데 '사납다·순하다' 차원과 매력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는 없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성이 어린 모습의 얼굴을 지닌 경우에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약하고, 복종적이며, 따뜻하고, 친절하고, 순진하다고 지각하여 긍정적 인상을 지닌다고 평가한다는 연구(Berry & Brownlow, 1989)의 결과나 성숙한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을 더 지배적이고, 덜 따뜻하며, 덜 상냥하리라 생각하여 더 부정적인 인상을 지닌다고 평가한 연구로 볼 때(Zuckerman, Miyake, & Elkin, 1995) 사납기보다 순한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남성들이 남성스러운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보다 여성스러운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연구결과는 Paunonen, Ewan, Earthy, Lefave, 및

Goldberg(1999)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눈이 큰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며 눈의 크기는 남성스러움·여성스러움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얼굴의 특징에 한정하지 않고 신체의 특징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를 살펴보다라도 여성스러움은 여성의 매력을 평가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Mehrabian과 Blum(1997)은 매력을 결정하는 신체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 여성스러움은 여성의 매력과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이들은 37개 신체 특징들로부터 남성성, 여성성, 자기관리, 유쾌함, 및 민족성(ethnicity)의 5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이 요인들 가운데 남성성은 체력, 긴장한 신체와 가슴, 그리고 넓은 어깨에 의해서, 그리고 여성성은 긴 머리, 화장, 그리고 크고 둥근 눈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18세에서 32세인 76명의 남녀 사진을 27개 신체적 특징들(나머지 10개 특징은 실험자들이 평정함)에 따라서 평정한 후 신체적 매력을 평정하였는데, 이 때 평정한 여성의 사진의 여성스러움은 여성의 매력과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남성들은 남성스러운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보다 여성스러운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지적인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과 매력의 관계를 다룬 연구의 예로 Jackson, Hunter, 및 Hodge(1995)의 연구를 살펴보자. 이들의 연구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은 덜 매력적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고 지각되었다. 물론 유능함이 매력에 미치는 효과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크기는 했으나 여성에서도 이 효과가 여전히 유의해서 매력적인 여성을 덜 매력적 여성보다 더 유능하다고 지각하였다. 이 연구로 볼 때 남성들은 맹한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보다 이지적인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박하다·점잖다'의 얼굴인상 차원과 매력의 관계를 직접 다룬 연구들은 없다. 그러나 경박하기보다 점잖은 얼굴일수록 신뢰감을 준다고 본다면,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을 알아본 연구(Fletcher, Simpson, Thomas, & Giles, 1999)에서 믿을 수 있으며 신뢰감을 준다고 예상되는 사람이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점잖은 얼굴일수록 더 매력적

이라고 평가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추론한 바에 근거를 두고 한국의 남성들이 어떤 얼굴 모습을 한 여성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고자 두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얼굴인상의 네 차원, 즉 ‘순하다.사납다’, ‘이지적이다.맹하다’, ‘점잖다.경박하다’, 및 ‘여성스럽다.남자답다’ 차원들이 남성들이 여성의 매력을 평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매력에 영향을 미친 인상차원들에서 높거나 낮은 평정치를 얻은 사진들을 이용하여 이 차원들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1 : 얼굴인상의 네 차원들이 매력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은 선행연구(이경성, 2002)에서 얻은 얼굴인상을 지각하는 네 개의 차원들 즉, ‘사납다.순하다’, ‘남자답다.여성스럽다’, ‘맹하다.이지적이다’, 그리고 ‘경박하다.점잖다’ 차원 가운데 어떤 차원이 매력의 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조사의 참가자

조사는 2002년 11월에 S대에서 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남학생 138명에게 실시되었다. 138명의 참가자들은 126명의 여성얼굴사진을 보면서 ‘사납다.순하다’, ‘남자답다.여성스럽다’, ‘맹하다.이지적이다’, ‘경박하다.점잖다’, 그리고 ‘매력수준’의 다섯 차원들 가운데 한 차원에 대해서 평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섯 차원들 가운데 각 차원별로 27명에서 28명의 남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126명의 여성얼굴사진을 보고 각 차원의 수준에 따라서 평정하였다.

조사의 자료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유재호(2001)의 연구에 사용된 20대 한국여성의 얼굴사진 100장¹⁾과 S 대학 여성의

얼굴사진 26장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수정과 유재호(2001)가 100명의 얼굴사진을 선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대표적인 20대 여성의 얼굴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 및 영남과 호남에 소재한 대학교들에서 사진들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에서 100명의 얼굴사진들을 일차적으로 수집하여 이 가운데 사진의 화질, 얼굴의 각도 및 선명도 등의 기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0장의 사진을 선정하였다²⁾. 본 연구에서 이 100장의 얼굴사진들에 대해서 28명에게 매력수준을 7점 척도에서 평정하게 한 결과에서 참가자들은 전체 인물사진들에 대해서 다소 매력적이지 않다(평균 3.17)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얼굴인상의 네 차원과 매력 수준에서 높은 값을 지니는 여성들을 보다 많이 포함하기 위하여 26명의 얼굴사진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26명의 얼굴사진을 추가로 선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36명의 남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서울의 S 대학 졸업 사진을 보고 각 얼굴인상 차원 및 매력수준에서 높은 값을 지니는 여성의 사진들을 고르게 하였다. 4명 이상이 각 차원들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동시에 매력수준이 높다고 골라낸 사진은 총 26장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26장의 사진을 포함하여 총 126장의 얼굴사진을 사용하였다.

조사의 절차

여대생의 얼굴사진 126장(색채사진)을 각각 동일한 크기로 프린트하여 남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사납다.순하다’, ‘남자답다.여성스럽다’, ‘맹하다.이지적이다’, ‘경박하다.점잖다’ 얼굴인상 차원과 ‘매력’ 가운데 한 차원에 대해서 7점 척도에서 수준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하였다. 남자답다.여성스럽다 차원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남학생에게 126장의 얼굴사진을 주고 각 사진의 얼굴인상이 매우 남자다운지 매우 여성스러운지 7점 척도의 수준에 따라서 구분하여 해당 범주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한 참가자가 사진을 분류하고 나면, 분류한 사진들을 임의로 오랜 동안 섞은 후 다음 참가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사진의 제시 순서가 무선화되어서 동일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1) 필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선뜻 내어주신 이수정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100장의 얼굴사진을 선정한 과정은 이수정과 유재호(2001)의 논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자료의 분석

(1) 각 사진별로 네 얼굴인상 차원들에서 평정한 값과 매력수준을 평정한 값에서 평균들을 각각 산출하였다. 그 다음 총 126장의 얼굴사진에 대한 얼굴인상의 평정치를 평균하여 각 차원별 평정치와 매력수준에 대한 평균을 얻었으며, 각 차원과 매력수준의 단순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2) 얼굴인상 차원들 가운데 어떤 차원이 얼굴의 매력 평가에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결 과

얼굴인상과 매력의 관계

표 1에 조사에 참가한 학생들이 126장의 얼굴사진에 대해서 얼굴인상의 차원과 매력수준에 따라서 평정한 평균과 이들 간 상호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먼저 얼굴인상 차원과 매력수준에 대해서 평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얼굴인상의 네 차원들에서 모두 평균이 7점 척도의 중간인 4점 내외로 나타나서 조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126명의 얼굴인상이 대체로 (1)사납거나 순하지 않고 (2)남자답거나 여성스럽지 않으며 (3)맹하거나 이지적이지 않고 (4)경박하거나 점잖지 않아서 보통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126장의 얼굴사진들에 대한 매력 평정은 평균이 3.28로서 다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매력의 평가와 얼굴인상의 각 차원 간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들은 얼굴인상이 여성스러울수록($r = .888, p < .001$), 이지적일수록($r = .786, p < .001$), 점잖을수록($r = .302, p < .001$), 순해 보일수록($r = .279, p < .001$)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1. 126장의 얼굴사진에 대해서 얼굴인상의 네 차원과 매력을 평정한 평균 및 상호상관

차 원	단순상호상관(Pearson r)				
	평 균 (편차)	사납다 순하다	남 자 여 성	맹하다 이지적	경 박 점잖다
사납다-순하다	3.96(0.77)				
남자답다-여성스럽다	4.10(0.86)	0.357***			
맹하다-이지적	3.83(0.79)	0.147	0.660***		
경박하다-점잖다	4.01(0.69)	0.735***	0.283**	0.336***	
매력	3.28(0.86)	0.279**	0.888***	0.786***	0.302***

매력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얼굴인상의 차원

얼굴인상의 각 차원이 매력 평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고 매력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얼굴인상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매력의 평가치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얼굴인상을 측정하는 네 차원들에서 얻은 득점을 예측변인으로 사용하여 동시중다회귀분석과 단순단계별 회귀분석을 하였다(표 2 참조).

먼저 동시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얼굴인상을 측정하는 네 차원들 가운데 매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은 '남자답다-여성스럽다($\beta = .661, p < .0001$)'와 '맹하다-이지적이다($\beta = .348, p < .0001$)' 차원이었다. 이 결과에서 남성들은 여성스러운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일수록, 그리고 이지적인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일수록 매력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차원 가운데 특히 '남자답다-여성스럽다' 차원이 상대적으로 매력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얼굴인상 차원들 가운데 어떤 차원들이 매력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단계별 회귀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시회귀분석에서 얻은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의 얼굴 모습을 보고 매력을 평정하도록 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얼굴인상 차원은 '남자답다-여성스럽다'로서 이 차원만으로 매력의 79%가 설명되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차원은 '맹하다-이지적이다'로서 매력의 7%를 설명하였으며, 두 차원만으로 매력 평가의 86%가 설명되었다. 이 결과들로부터 남성이 여성의 얼굴 모습을 보고 매력을 평정하게 되면 '남자답다-여성스럽다' 차원과 '맹하다-이지적이다' 얼굴인상 차원이 매력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2. 얼굴인상 차원들이 매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중다회귀 분석

차 원	동시회귀분석		단순단계별회귀분석	
	β	단계	차 원	R^2 증가 R^2
사납다-순하다	-0.016	1	남자답다-여성스럽다	0.790***
남자답다-여성스럽다	0.661***	2	맹하다-이지적이다	0.861
맹하다-이지적	0.348***			0.071***
경박하다-점잖다	0.010			

연구 2 : 얼굴인상의 여성성과 이지성이 매력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에서는 얼굴사진의 매력수준이 서로 다른 126개 사진들을 자극으로 사용하게 되면 얼굴인상을 측정하는 네 차원들 가운데 '남자답다/여성스럽다'와 '맹하다/이지적이다' 두 차원이 매력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남자답다/여성스럽다'와 '맹하다/이지적이다' 두 차원은 매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1의 결과는 연구 1에서 매력수준이 서로 다른 여러 자극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자극의 제시 순서에 따라서 앞에서 매력을 평정한 경험 때문에 뒤에 제시한 자극에 대한 매력 평정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력적인 사람의 얼굴사진을 먼저 본 다음 낯선 사람의 매력을 평정하게 되면 낯선 사람은 덜 매력적으로 평가된다(Kenrick, Montello, Guitierrez, & Trost, 1993). 연구 1에서는 126장의 사진들을 보고 이 사진들을 매력수준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한 장의 얼굴사진에 대한 매력을 평가할 때 다른 많은 사진에 의해서 영향받게 된다. 그러므로 얼굴사진들 가운데 특히 매력이 높거나 낮은 자극들 때문에 인상 차원들 가운데 두 차원들이 매력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얼굴사진 자극의 매력수준을 중간 수준으로 일정하게 고정시킨 조건에서도 이 두 차원이 매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 1과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반복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사용한 사진들 가운데 매력이 중간 수준인 사진들을 선정하여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서론에서 제시한 가설들 가운데 연구 2에서 반복 검증하게 되는 가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남성들은 남자다운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보다 여성스러운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낄 것이다.

가설 2. 남성들은 맹한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보다 이지적인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낄 것이다.

가설 3. 남성들은 다른 여성들보다 여성스럽고 이지적인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낄 것이다.

연구방법

피험자

실험은 2003년 3월에 S대학에서 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남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남학생들 가운데 복학생은 8명(40%), 애인이 있는 사람은 9명(45%)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1.6세(복학생 24.7, 비복학생 19.6, 애인있는 사람 22.4, 애인없는 사람 20.9)였다³⁾.

실험설계

2(여성성 : 남자답다/여성스럽다) * 2(이지성 : 맹하다/이지적이다)의 네 조건에 피험자가 모두 반응하는 2원 피험자내 설계였으며 20명의 남학생들이 참여하였다⁴⁾.

실험절차

피험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소개한 후 각 조건별로 한 여성의 얼굴사진을 보고 먼저 그 여성의 매력을 평정한 후 인상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실험의 모든 절차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되어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피험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컴퓨터가 있는 책상 앞에 앉도록 한 후 실험자가 모니터를 보고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였다. 실험자는 이 연구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컴퓨터에 제시되는 얼굴사진을 보고 인상을 평가해 달라고 지시한 후, 실험자는 피험자 옆을 떠나서 다른 책상 앞에 앉았다. 실험자가 자리를 뜬 후 피험자는 모니터 화면에 제시되는 얼굴사진을 보고 매력과 인상을 평정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인구통계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나이와 군대경험의 여부 및 애인 유무를 표시하였다. 실험자는 실험의 목적을 모르는 남학생이었으며, 피험자가 제시되는 얼굴사진의 매력과 인상을 평정하는 동안 실험자가 피험자를 볼 수 없

3) 애인 여부나 군대경험 여부에 따라서 얼굴사진에 대한 매력 평가는 다르지 않았다. 애인 여부, $F(1, 19) = 0.19, n.s.$, 군대경험 여부, $F(1, 19) = 0.00, n.s.$

4) 네 조건에 해당하는 얼굴사진들을 제시하는 순서를 달리하여 네 개의 실험 재료를 만들었으며, 피험자들은 이 가운데 한 실험 재료에 응답하였다. 얼굴사진을 제시하는 순서에 따른 효과는 없었다.

다고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험자의 모니터를 볼 수 없는 곳에 앉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될 얼굴사진의 선정

연구 1에서 얻은 인상차원의 평정치와 매력수준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실험에 사용될 사진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 사용된 126장의 사진 가운데 매력수준은 중간(7점 척도에서 3.3점에서 3.74점)으로 평가되면서 '남자답다/여성스럽다'의 차원에서 평정한 값이나 '맹하다/이지적이다' 차원에서 평정한 값이 각각 높거나(4.5점) 낮은(3.5점) 평정치를 보이는 사진을 가려내어서 두 차원의 네 조건별로 1장씩 총 4장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측정

매력은 "이 얼굴을 지닌 여성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에 대해서 7점 척도(1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7 매우 매력적이다)로 평정되었다. 얼굴인상의 측정치는 독립변인이 제대로 조작되었는지 알아보고 독립변인으로 조작된 인상차원 외에 얼굴인상을 측정하는 다른 차원들의 효과를 부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얻었다. 이 과정에서 모두 4 문항의 측정치를 얻었다; (1) 사납다/순하다, (2) 남자답다/여성스럽다, (3) 맹하다/이지적이다 (4) 경박하다/점잖다. 얼굴인상 차원은 모두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결 과

독립변인의 조작효과

먼저 얼굴인상의 여성성(남자답다/여성스럽다)이 제대로 조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얼굴인상이 남자다운

지 여성스러운지 평가한 질문에 대해서 2(여성성) * 2(이지성)의 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성의 주효과만 유의하여서 여성성이 낮은 조건(M = 3.08)보다 여성성이 높은 조건(M = 4.28)에서 얼굴인상이 더 여성스럽다고 평정하였다, $F(1, 19) = 18.12, p < .001$. 이 분석 결과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여성성의 주효과만 나타났으므로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다음으로 이지성(맹하다/이지적이다)이 제대로 조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얼굴인상이 맹한지 이지적인지 평가한 자료를 2(여성성) * 2(이지성) 변량분석하였다. 이 결과에서도 이지성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지성이 높은 조건(M = 4.48)에서 낮은 조건(M = 2.85)보다 얼굴인상을 더 이지적으로 평정하였다, $F(1, 19) = 49.1, p < .0001$. 이 분석 결과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이지성의 주효과만 나타났으므로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얼굴인상의 여성성과 이지성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

남성들이 여성스럽거나 이지적인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여성성) * 2(이지성)의 2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남성들이 남성스러운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2.15)보다 여성스러운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2.97)에게 매력을 느껴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F(1, 19) = 10.45, p < .01$. 또한 남성들은 맹한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2.38)보다 이지적인 얼굴인상(2.73)을 지닌 여성에게 매력을 느껴서 가설 2도 지지되었다, $F(1, 19) = 4.45, p < .05$. 마지막으로 얼굴인상의 여성성과 이지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F(1, 19) = 5.58, p < .05$,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들은 남성스러우면서 맹한 얼굴

표 3. '남자답다-여성스럽다', '맹하다-이지적이다', 및 매력의 평가(N=20)

남성적-여성적	저			고			전 체		
	저	고	전 체	저	고	전 체	저	고	전 체
맹하다/이지적이다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매력	1.60(0.59)	2.70(1.26)	2.15(1.12)	3.21(1.58)	2.75(1.01)	2.97(1.32)	2.38(1.42)	2.73(1.13)	2.56(1.28)
남자답다/여성스럽다	2.80(1.10)	3.35(0.93)	3.08(1.04)	4.35(1.08)	4.20(1.10)	4.28(1.08)	3.58(1.33)	3.78(1.09)	3.68(1.21)
맹하다/이지적이다	2.95(0.75)	4.45(0.99)	3.70(1.15)	2.75(0.91)	4.50(1.00)	3.63(1.29)	2.85(0.83)	4.48(0.98)	3.66(1.22)

주) 점수가 높을수록 매력적, 여성스러움, 이지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비매력적, 남성적, 맹함을 의미한다.

인상을 지닌 여성(1.60)을 남성스러우면서 이지적인 얼굴 인상을 지닌 여성(2.70)보다 더욱 더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정하였으나, $F(1, 19) = 11.00, p < .01$, 여성스러운 얼굴 인상을 지닌 경우 그 여성이 맹한 얼굴인상을 지녔는지(3.21) 이지적인 얼굴인상을 지녔는지(2.75)에 따라서 매력의 평가가 다르지 않았다, $F(1, 19) = 1.25, p < .28$.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여성의 얼굴 모습에 의해서 형성된 인상의 차원들에 따라서 매력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남성들이 여성의 얼굴 모습에서 형성하는 인상의 네 차원들 가운데 어떤 차원들이 매력을 평가하는데 기여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여성의 얼굴인상 차원들 가운데 여성성과 이지성이 매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 2에서는 이 두 차원들에서 차이를 보이는 여성의 얼굴사진들로서 매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자극을 제시하고 이 두 차원에서 형성한 인상들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2에서도 연구 1과 일관되게 남성들이 여성의 얼굴 모습에서 여성성이 높거나 이지성이 높으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여성의 매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연구 2에서는 여성스러운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은 얼굴인상이 맹한지 이지적인지와 상관없이 매력의 평가에서 동일하며, 이지성 차원은 남성스러운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에게 중요하다라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연구 2에서 자극으로 사용한 얼굴사진들은 여성성이나 이지성 이외에 다른 얼굴인상 차원들, 예컨대 '사납다-순하다'나 '경박하다-점잖다' 차원에서 각기 다른 값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작한 인상차원에 의해서 매력의 평가가 달라졌다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차원의 효과를 제외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납다-순하다'와 '경박하다-점잖다' 인상차원에서 평정한 값을 첫 단계에, 본 연구에서 조작한 여성성, 이지성, 그리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두 번째 단계에 예측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납다-순하다' 차원($\beta = -.17, p < .12$)과 '경박하다-점잖다' 차원($\beta = .21, p < .06$)은

매력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이 두 변인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본 연구에서 조작한 여성성과 이지성의 주효과, 및 여성성과 이지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R^2 = .17$), 순서대로 $\beta = .71, p < .01$, $\beta = .59, p < .05$, $\beta = -.66, p < .05$. 이 결과를 통해서 남성들이 대체로 여성의 얼굴 모습만을 보고 인상을 형성하여 매력수준을 평가하게 되면 얼굴인상 차원 가운데 여성성과 이지성의 차원을 중요하게 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연구 2에 사용하였던 얼굴사진에 대해서 매력을 평가한 결과가 연구 1과 연구 2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2에 사용한 얼굴사진들은 연구 1에서 매력수준이 중간(7점 척도에서 3.30점에서 3.74점)인 사진들이었는데 연구 2에서 피험자들에게 이 얼굴사진에 대한 매력을 평가하게 한 결과, 피험자들은 이들을 매력수준에서 중간 이하(2.57)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얻어진 이유를 다음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연구 2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 1에서는 매력을 평가할 때 매력수준이 낮은 얼굴사진에서 매력적인 얼굴사진까지 매력수준이 다른 다양한 사진들에 의해서 영향받았다. 반면에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 비해서 비교적 매력수준이 비슷한 4장의 사진들에 대해서 평정하게 하였으므로 자신의 기준이 보다 두드러지게 반영되었을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얼굴사진에 대한 전반적 매력을 측정하는 문항 이외에도 데이트상대로서, 그리고 배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에서 측정하였다. 데이트 상대 및 배우자로서의 매력을 측정할 경우, 전반적 매력을 측정한 결과보다 자신과 관련해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자신과 관련지어 상대방의 매력을 평정하게 되면 매력의 평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매력을 측정하는 나머지 두 문항에 대해서도 독립변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반적 매력, 데이트 상대로서, 그리고 배우자로서의 매력을 측정한 결과는 순서대로 2.56, 2.60, 2.55로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평가하는 대상의 얼굴인상이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 그리고 맹한지 이지적인지에 따라서 매력을 평정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데이트 상대로서의 매력을 측정한 결과는 이지성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제외하면

표 4. 얼굴인상의 여성성, 및 이지성이 전반적 매력, 데이트상대로서, 그리고 배우자로서 평가에 미치는 영향

남성적-여성적 맹하다.이지적이다	저			고			전 체		
	저	고	전 체	저	고	전 체	저	고	전 체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전반적 매력	1.60(0.59)	2.70(1.26)	2.15(1.12)	3.21(1.58)	2.75(1.01)	2.97(1.32)	2.38(1.42)	2.73(1.13)	2.56(1.28)
데이트 상대로서	1.75(1.01)	2.75(1.11)	2.25(1.17)	3.15(1.49)	2.75(0.96)	2.95(1.25)	2.45(1.44)	2.75(1.03)	2.60(1.25)
배우자로서	1.90(1.02)	2.75(1.25)	2.33(1.20)	2.80(1.23)	2.75(1.16)	2.78(1.18)	2.35(1.21)	2.75(1.19)	2.55(1.21)
전 체	1.75(0.82)	2.73(1.14)	2.24(1.10)	3.05(1.35)	2.75(0.95)	2.90(1.16)	2.40(1.28)	2.74(1.04)	2.57(1.17)

전반적 매력을 측정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들은 여성스러운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2.95)을 남성스러운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2.25)보다 데이트 상대로서 더 싫어했으나, $F(1, 19) = 8.78, p < 0.01$, 여성의 얼굴인상이 맹한지(2.45) 이지적인지(2.75)에 따라서 데이트 상대로서의 평가는 다르지 않았다, $F(1, 19) = 2.59, n.s.$ 한편 얼굴인상의 여성성과 이지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는데, $F(1, 19) = 5.61, p < .05$, 남성스러우면서 맹한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1.75)을 남성스러우면서 이지적인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2.75)이나 여성스러우면서 맹하거나(3.15), 이지적인 얼굴인상을 지닌 여성(2.75)보다 데이트 상대로서 더 싫어해서 전반적 매력에 대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로서의 매력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얼굴인상의 여성성, 이지성의 주효과 및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모두 보이지 않았다, 순서대로 $F(1, 19) = 2.66, p < .12, F(1, 19) = 3.42, p < .08, F(1, 19) = 3.21, p < .08$.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남성들은 평가 여성이 배우자로서 좋은지 싫은지에 응답하게 했을 때에는 그 여성의 얼굴인상이 남성스러운지(2.33) 여성스러운지(2.78), 그리고 맹한지(2.35) 이지적인지(2.75)와 상관없이 배우자로서 싫다고 응답하였다. 얼굴인상의 여성성과 이지성이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앞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매력의 다른 두 측정치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서, 남성스러우면서 맹한 인상을 지닌 여성(1.90)을 이지적인 인상을 지닌 여성(2.75)이나 여성스러우면서 맹하거나(2.80) 이지적인 여성(2.75)보다 배우자로서 더 싫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두 연구의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들이 대체로 여성의 얼굴 모습만을 보고 인상을 형성하여

매력수준을 평가하게 되면 얼굴인상 차원 가운데 여성성과 이지성의 차원을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판단하는 젊은 여성의 얼굴인상 차원들이 매력 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장래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연령이나 여성의 연령이 달라지면 얼굴 모습에서 형성한 인상차원들에 따라서 매력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얼굴 모습의 매력이 중간 수준인 사진만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에서 얼굴 모습의 매력수준을 또 다른 독립변인으로 추가하여 매력이 높거나 혹은 낮은 자극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인상의 두 차원들이 젊은 남성들이 젊은 여성들의 매력수준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는 일관된 결과를 얻는데 의의가 있다. 장래 연구에서는 인상을 지각하는 사람, 대상, 그리고 사회상황에 따라서 이 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되는 범위와 한계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이수정, 유재호 (2001). 인상형성 준거에 근거한 20대 한국여성 얼굴사진 DB구축.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6(2), 121-136.
- 이경성 (2002). 한국사람들은 사람들의 얼굴인상을 어떤 차원들로 지각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2), 51-74.
- Berry, D. S. (1991). Attractive faces are not all created equal : Joint effects of facial babyishness and attractiveness on social perception.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523-533.
- Berry, D. S., & Brownlow, S. (1989). Were the physiognomists right? Personality correlates of facial babyish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266-279.
- Berry, D. S., & McArthur, L. Z. (1985). Some components and consequences of a babyfa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8, 312-323.
- Berry, D. S., & Miller, K. M. (2001). When boy meets girl : Attractiveness and the five-factor model in opposite-sex interact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5, 62-77.
- Buss, D. M., & Schmitt, D. P. (1993). Sexual strategies theory :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uman mating. *Psychological Review*, 100, 204-232.
- Cunningham, M. R. (1986). Measuring the physical attractiveness : Quasi-experiments on the socio-biology of female beau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31-161.
- Cunningham, M. R., Barbee, A. P., & Pike, C. L. (1990). What do women want? Facialmetric assessment of multiple motives in the perception of male facial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61-72.
- Jackson, L. A., Hunter, J. E., & Hodge, C. N. (1995). Physical attractiveness and intellectual competence : A meta-analytic review.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8, 108-122.
- Kenrick, D. T., Montello, D. R., Gutierrez, S. E., & Trost, M. R. (1993).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affect and perceptual judgement : When social comparison overrides social reinforc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195-199.
- McArthur, L. Z., & Berry, D. S. (1987). Cross-cultural agreement in perceptions of babyfaced adul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165-192.
- Paunonen, S. V., Ewan, K., Earchy, J., Lefave, S., & Goldberg, H. (1999). Facial features as personality cues. *Journal of Personality*, 67, 555-583.
- Walster, E. E., Aronson, D. A., Rottman, L. (1966). Importanc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d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508-516.
- Wheeler, L., & Kim. Y. M. (1997). What is beautiful is culturally good : The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e has different content in collectivistic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795-800.
- Zebrowitz, L. A., Montepare, J. M. & Lee, H. K. (1993). They don't all look alike : Individuated impressions of other racial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85-101.
- Zuckerman, M., Miyake, K., & Elkin, C. S. (1995). Effects of attractiveness and maturity of face and voice on interpersonal impress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253-272.

Which facial attributes of women attract young men?

Kyung-Seong Lee and Doug-Woong Hah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wo studies examined the effects of facial attributes on attractiveness. In study 1,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ubmissive-fierce', 'intelligent-dull', 'gentle-frivolous/thoughtlessness', and 'womanly-manly' dimensions on women's attractiveness. Specifically, 138 male undergraduate students rated 126 female photographs on the four dimensions or attractivenes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four dimensions of facial impressions on women's attractivenes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womanly and intelligent faces were rated as more attractive, and R^2 of these two dimensions were 86%. But,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two dimensions became salient because the photographs were all different in terms of attractiveness. In study 2, we examined the effects of the 'womanly-manly' and 'intelligent-dull' dimensions on women's attractiveness with the attractiveness fixed at the middle level. There were four target photographs, each from four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who differed on the 'womanly-manly' and 'intelligent-dull' dimensions. Twenty male undergraduate students rated the attractiveness and facial impressions of the photograph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wo dimensions were still influential in the attractiveness ratings, and manly and dull faces were rated as more unattractive than the faces in the other conditions.

Keywords : Facial impressions, 'womanly-manly' dimension, 'intelligent-dull' dimension, interpersonal attraction

원고접수 : 2003년 6월 13일

심사통과 : 2003년 7월 31일